

11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

한 수 영

호남문화재연구원

- I. 머리말
- II.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분포와 특징
- III.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
- IV. 향후 논의과제
- V. 맺음말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

한 수 영 (호남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불과 20여년 전 까지만 해도 초기철기시대 자료는 간헐적으로 발견된 적석목관묘에 불과하였으며, 전적으로 자료가 부족하여 우리나라 고고학 연구의 미씽링크로 불려 왔다. 호남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호남지역에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알려진 것은 100여년 전으로 1920년 일제 강점기에 완주 상운리 근처에서 세형동검이 수습보고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광주 신창동 옹관묘가 발굴 조사되었고,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세형동검과 동과 등 다수의 청동유물이 신고되었다. 70년대에는 화순 대곡리와 완주 상림리유적이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80년대 후반에는 함평 초포리유적과 광주 신창동, 해남 군곡리유적 등이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완주 갈동과 신평유적, 나주 구기촌유적 등 다수의 분묘유적이 조사되면서 현재는 한반도 초기철기문화 연구에 있어 호남지역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호남지역의 초기철기문화는 점토대토기문화와 세형동검문화가 조성된 후에 철기가 들어오면서 완성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유물은 점토대토기이다. 호남지역은 지형과 수계를 기준으로 만경강유역권, 고창과 영광의 서해안권, 영산강유역권, 남해안권, 동부내륙을 포함한 섬진강유역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유적은 만경강과 영산강의 중상류에 밀집되어 있다. 해안과 인접한 강의 하류가 아니라 중상류에 유적이 밀집 조성된 것은 점토대토기문화가 서해를 통해 들어와 내륙수로인 강을 주 교통로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본고에서는 점토대토기를 기준으로 호남지역 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전개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논의점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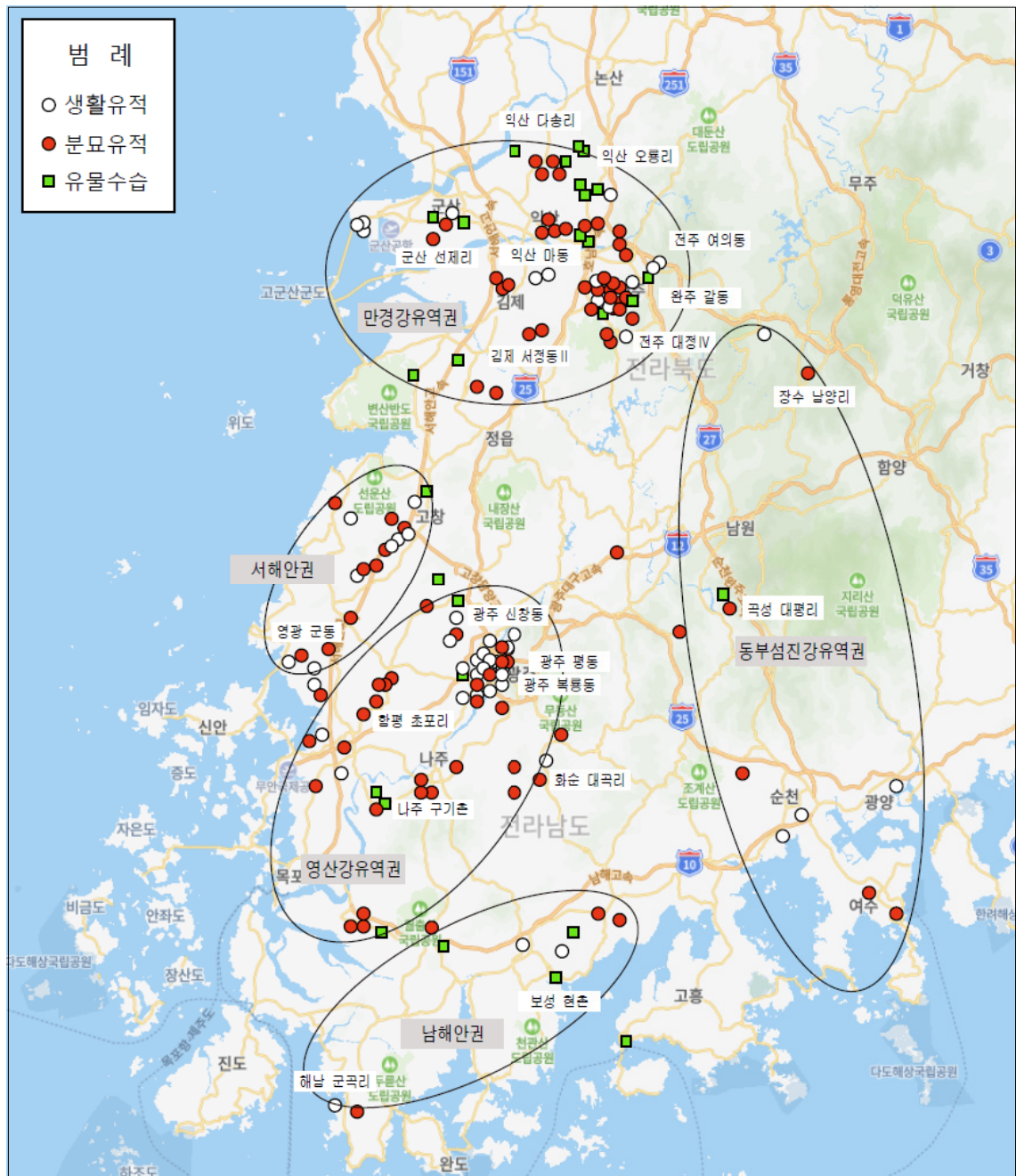


그림 1.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유적 분포현황

표 1.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현황

(주:주거지, 수:수혈, 토:토광(목관)묘, 적:적석목관묘, 웅:웅관묘, 지:지석묘, 석:석관묘)

구 분	유적명	조 사 내 용			구 분	유적명	조 사 내 용		
		생활유적	분묘유적	기타			생활유적	분묘유적	기타
만 경 강 유 역 권	완주 상운리	주4,수3			동 부 섬 진 강 유 역 권	고창 황산	수1		
	완주 운교	주1				영광 군동	주1	주구토1,토2	
	완주 갈산리	주2,수3	웅2			진안 군상리	주1		
	완주 덕동	수8,구13	토7			장수 남양리		적5	
	완주 둔산리 서당		토25			순창 동촌		토1	
	완주 수계리 청등		토5			곡성 대평리	주,수,구	주구토11,토1	
	완주 신평	소성유구	토81			곡성 공북리		지1	
	완주 신평			유물포함층		곡성 연반리		지1	
	완주 갈동	수2, 구상유구1	토17			순천 덕암동			패총
	완주 용흥리	수2				순천 연향동 대석	주3		
	전주 반월동		토3			순천 평중리 평지		지1	
	전주 여의동		석개토1			순천 대곡리	주		
	전주 만성동·여의동		토3,적4		영 산 강 유 역 권	여수 안골		지4	
	전주 만성동		토1			여수 웅천동 웅동		토1	
	전주 원장동		토5			광주 신창동	구	웅53	저습지, 가마
	전주 중동	주5, 수4		유물포함층		광주 금호동	수1	토1	
	전주 중동C		웅1	유물포함층		광주 수문	주1,수3		
	전주 중동A	주1,수12,구19		유물포함층		광주 신촌	수22		
	전주 정문동	수7,구9				광주 오룡동	구3		
	전주 안심	주2				광주 치평동	구2		
	전주 마전	수6,구6	토1			광주 평동	주9,수혈군	토1	
	전주 효자4		적1			광주 매월동		지4	
	전주 중화산동		토15			광주 운남동		웅4	
	전주 대정Ⅳ	주9,수5				광주 관동	수1	토1	
	전주 평화동 대정	수1				광주 성덕		토7	
	전주 중인동		토9			광주 딱피	주1		
	전주 중인동 하봉		토1			광주 수문		토1	
	전주 척동	수1				광주 하선	수3		
	익산 구평리Ⅳ	수1	웅			광주 장자		웅3	
	익산 구평리Ⅱ		토4			장성 월정리		토2	
	익산 서두리1	수1,구1				장성 환교		토1	
	군산 선제리		적1			나주 복암리	수23		
	군산 건장산		웅1			나주 윤곡동	주1,수7	지1	
	익산 다송리		적1			나주 월양리		지1	

구 분	유적명	조 사 내 용			구 분	유적명	조 사 내 용		
		생활유적	분묘유적	기타			생활유적	분묘유적	기타
	익산 오룡리		토4			나주 운곡동	수13	지2	저습지
	익산 신동리		토3			나주 도민동		토1	
	익산 마동		토33,옹14			나주 구기촌		토10	
	익산 송학리		토1			나주 수문	수2		폐총
	익산 평장동		토1			함평 자풍리	수11,구3	토1	가마
	익산 계문동		토1			함평 고양촌	수24		
	익산 어양동		옹1			함평 마산리 표산		토1	
	익산 부송동 석치		토4			함평 상곡리		석6,적1	
	익산 광암리·동촌리	주1,수6				함평 초포리		적1	
	김제 서정동		토5			함평 당하산		토1,옹3	
	김제 서정동Ⅱ		토6,옹4			함평 소명동	주1		
	김제 산치리		토1			무안 인평		옹1	
	김제 수록리		토7			영암 엄길리		지1	
	김제 부거리		토1			영암 장천리		지1	
	김제 반월리	주4,수8,구2				영암 서호리		지1	
	김제 석담리	구3				화순 백암리	주1	적1	
	부안 원천리	수7				화순 황새봉	주3		
서 해 안 권	정읍 정토		토2		남 해 안 권	화순 내평리		토1	
	정읍 백양		토1			화순 대곡리		적1	
	고창 올계리	주1				해남 황산리		석1	
	고창 왕촌리		석1			해남 군곡리	주1		폐총
	고창 죽림리		지1			강진 수양리		지1	
	고창 산정리	수7				장흥 행원	주1		
	고창 성남리	수3,구1				장흥 송정		지1	
	고창 교운리	수1				장흥 갈두	주3		
	고창 연수동			유물포함층		장흥 신평	수2		
	고창 운곡리			유물포함층		보성 우산리 현촌		토3	

II.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분포와 특징

1. 생활유적

생활유적은 유구의 성격상 주거지와 수혈·구·유물포함층·패총 등으로 구분되며, 만경강유역은 생활유적보다 분묘유적이 많고, 영산강유역은 분묘유적에 비해 생활유적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대규모 취락유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거지 가운데 5~10기 내외의 군집을 이루는 유적은 전주 중동과 대정Ⅳ·광주 평동유적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1~2기 내외의 소규모 단위이다. 주거지는 형태에 따라 원형과 말각방형의 송국리형주거지와 말각장방형의 수석리식주거지, 방형과 타원형 주거지로 나눌 수 있다.

점토대토기 유적은 군산 도암리나 완주 운교유적과 같이 송국리형주거지군 가운데 1~2기에서 점토대토기나 두형토기가 소량 확인되는 양상으로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송국리형주거지는 초기철기시대로 오면서 퇴화·소멸되는데, 지역에 따라 그 시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거지의 깊이가 낮아지고, 평면형태는 원형에서 말각방형으로 바뀌며, 바닥중앙에 타원형수혈과 중심주공이 있는 전형적인 형태에서 중심주공이 없어지고 타원형수혈만 있다가 이마저도 소멸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부 주거지에서는 타원형수혈 자리에 노지로 추정되는 소토부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만경강유역은 원형에서 말각방형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영산강유역은 말각방형이 많은데, 이는 금강유역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방형이 증가하는 송국리문화 양상(이종철 2015:102-103)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각방형에 타원형수혈이 퇴화된 양상은 완주 상운리와 갈산리유적에서 나타나며, 광주 평동유적에서는 말각방형에 타원형수혈과 중심주공이 있다가 중심주공이 소멸되는 과정이 확인된다.

수석리식주거지는 그동안 경기도와 호서지방에서 확인되었으며, 출토된 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호남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가 호서지방보다 늦게 출현하는 근거로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 전주 평화동 대정Ⅳ유적에서 수석리식주거지군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대정Ⅳ유적은 만경강의 지류인 삼천유역의 충적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좁은 범위에 1기의 송국리형 주거지와 수석리식으로 불리는 9기의 말각장방형계 주거지, 수혈 5기가 밀집분포하고 있다¹⁾. 주거지의 규모는 장축 450~500cm, 단축 330~430cm, 면적 17~19m² 정도이나, 서남쪽에 위치한 6호는 장벽 길이 920cm, 면적 49m²의 대형을 이루며, 6호를 중심으로 등고선을 따라 3~4기 내외의 소형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내부에는 장축선상을 기준으로 1기에서 2기 내외의 노지가 있으며, 소형 주공과 부분적으로 벽구가 시설되어 있다. 출토된 유물은 송국리식 토기 외에 원형점토대토기용·흑도장경호·두형토기·완·석제 검과두식 등이 공반되었다(그림 2).

1) 전주 평화동 대정Ⅳ유적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에 의하면 송국리형주거지는 2470±40BP(보정연대 BC770~BC430), 말각장방형계 주거지는 2570±50BP(보정연대 BC830~BC540)에서 2430±40BP(보정연대 BC600~BC400)로 측정되어, 말각장방형 주거지와 송국리형주거지가 동시에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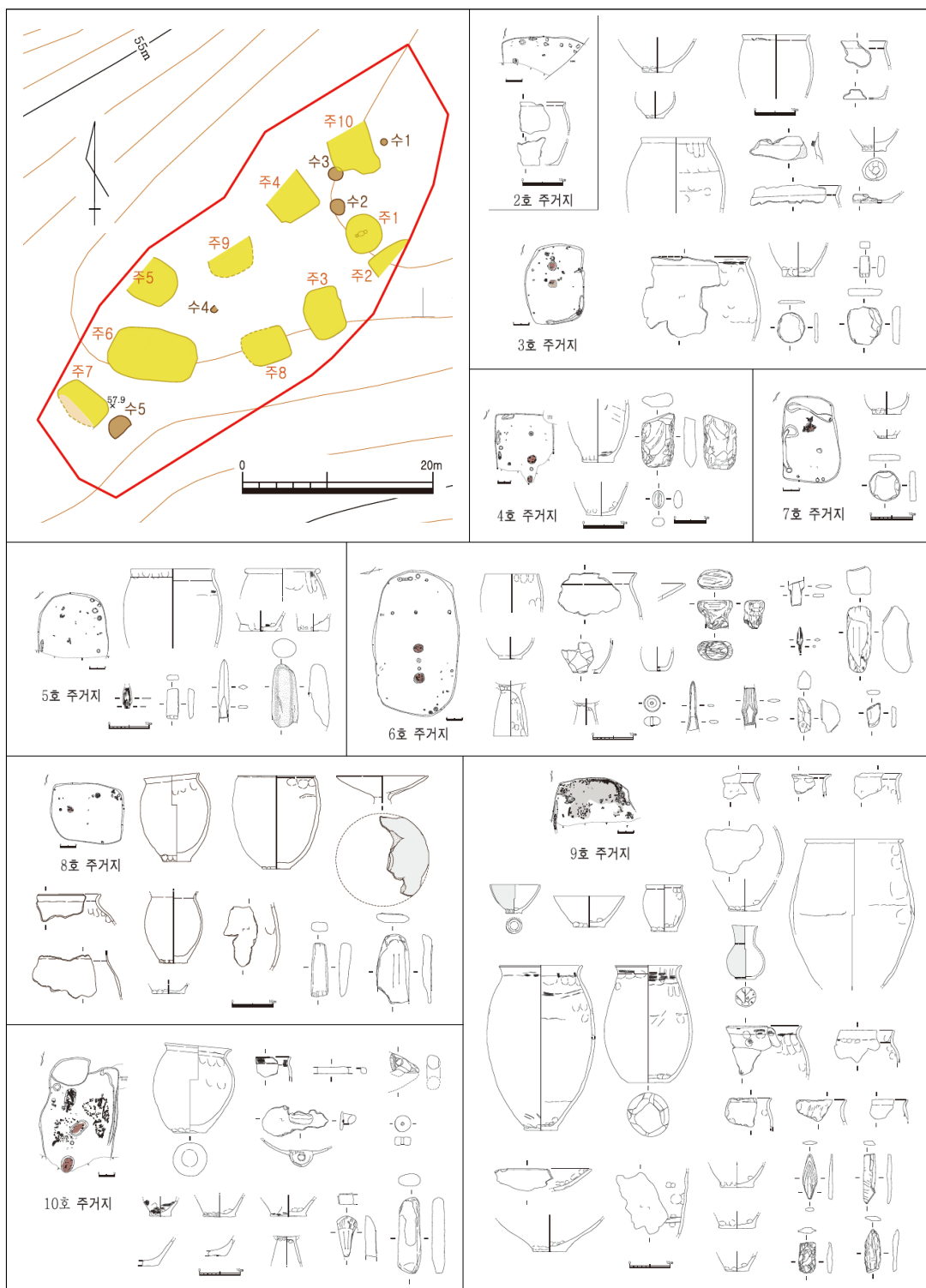


그림 2. 전주 평화동 대정Ⅳ유적 말각장방형계 주거지와 출토유물

타원형 주거지는 전주 안심유적과 진안 군상리, 곡성 대평리, 광주 평동 등에서 확인되는데, 곡성 대평리 1호 주거지에서는 부뚜막이 시설되어 있다. 타원형의 평면형태는 섬진강유역권에서 주로 확인되며, 이 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는 서부지역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게 출현하고 있다.

방형 주거지는 전주 중동유적이 대표적으로, 기존의 송국리형 주거지와 확연히 구분되는 전형적인 점토대토기 주거지로 의미가 있다. 주거지는 구릉의 사면부에 약 250m의 범위에 걸쳐 모두 5기가 조성되었다. 중앙부에 소형의 주거지 3기와 수혈 4기가 밀집되어 있고, 동서 양쪽으로 약 100m 정도 거리에 대형의 주거지가 각각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소형과 대형의 구분이 뚜렷한데, 소형은 한 변의 길이가 200~300cm, 면적 5.4~7.6㎡를 이루고, 대형은 한 변이 500~680cm, 면적은 32~36㎡를 이룬다. 잔존 깊이는 70~128cm로 깊은 편이며, 내부시설은 2기에서만 부정형의 바닥 수혈과 외부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원형과 삼각형 점토대토기·두형토기·조합식우각형과수 등 주변 일대의 유적과 동일하나, 편평삼각석촉 21점이 출토되어 특징적이며, 주거지 하단부의 유물포함층에서 기와와 야요이계 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수혈유구는 대정Ⅳ·중동·평동유적에서는 주거지군과 같이 조성되고, 내부에서 목탄이 검출되어 저장기능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의 수혈유구는 규모나 형태가 다양하고, 유실이 심해 성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영산강유역에서는 평동유적을 비롯해 광주 신촌과 함평 고양촌 유적과 같이 수혈유구가 집중된 양상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일부 수혈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주 운곡동 Ⅱ-7호 수혈은 부정형의 평면에 소토와 탄화곡물을 비롯하여 흑도장경호 등이 출토되어 의례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혈유구가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특정유적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구는 만경강유역에서 보다 많이 확인된다. 만경강유역에서도 전북혁신도시 일대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는데, 갈동유적은 등고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구상유구로 부를 수 있으며, 전주 정문동과 중동A유적은 경사면과 나란하고, 인위적으로 굴착한 흔적이 없으며, 출토된 유물 역시 대부분 소형편으로 유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혈유구나 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류로 주거지 출토유물과 동일하며, 완만한 사면부에 유수에 의해 구가 형성될 정도면 당시 구지표가 경작이나 생활면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따라서 주거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수혈유구나 구가 분포하는 지역에는 동일한 구역에서 주거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2. 분묘유적

세형동검이나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분묘로는 청동기시대부터 이어진 석관묘·지석묘가 있고,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주구토광묘가 등장하고 있지만, 주를 이루는 유형은 토광(목관)묘와 옹관묘, 적석목관묘이다.

토광(목관)묘는 초기철기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며, 특히 만경강유역을 중심으로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주로 구릉의 서사면과 남사면에 분포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지형을 따라 사면과 나란하게 위치하다가, 점차 등고선과 평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시간적인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10cm 정도의 소형부터 380cm의 대형까지 다양하며, 잔존깊이 역시 20cm

미만부터 180cm 정도까지 편차를 보인다. 토광 내부는 관의 유무에 따라 직장묘와 목관묘로 나뉘고, 목관묘는 다시 판재관과 통나무관으로 구분된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토광(목관)묘는 토광의 규모가 작고, 직장묘가 주로 조성되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에 가깝고, 토광의 규모나 부장품에 있어 무덤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로 갈수록 유적의 군집과 토광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평면은 세장방형에서 장방형으로 넓어지며, 목관의 빈도가 높고, 부장품이 풍부해지면서 무덤간의 격차가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한수영 2011:8-16).

주요유적으로 만경강 상류의 완주 둔산리·수계리, 전주 중인동·중화산동유적이 있으며, 중상류역에 완주 갈동과 덕동·신평, 전주 반월동·원장동유적 등이 밀집되어 있다. 중류와 하류에는 익산 신통리와 마동유적을 비롯하여, 김제 서정동·수록리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서해안권에서는 정읍 정토와 백양유적에서 비교적 시기가 이른 토광묘가 확인되었으며, 영산강유역권에서는 장성 월정리와 나주 구기촌이 대표적이다.

옹관묘는 지석묘·석관묘 등과 함께 송국리문화를 대표하는 분묘의 유형으로 청동기시대에는 단옹직치나 단옹사치의 형식에서 초기철기시대로 오면서 이옹횡치, 혹은 단옹횡치 등 횡치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료의 증가로 청동기 중기 이후부터 다양한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유적인 전주 동산동에서는 단옹직치와 단옹사치 뿐 아니라 이옹횡치와 이옹직치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옹관의 형태가 초기철기시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한수영 2017:7-8). 옹관으로 사용된 기종은 다양한 크기의 삼각형점토대토기옹과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 봉상과수부호, 발형토기, 시루 등이 사용되다가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옹형토기와 호형토기 중심으로 바뀌며, 동일한 기종이라 하더라도 부장용으로 사용된 토기보다 크기가 큰 편이다.

옹관묘는 만경강과 영산강유역에서 주로 확인되며, 토광(목관)묘에 비해 수량이 많지 않고, 기원전 1세기 이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만경강유역은 상류에 비해 유적 조성시기가 늦은 중상류와 하류를 중심으로 1~2기 내외로 확인되다가, 김제 서정동Ⅱ유적이거나 최근 조사된 익산 마동유적과 같이 옹관묘의 수량도 증가하며 토광(목관)묘와 동일한 묘역에 조성된다. 영산강유역에서는 함평 당하산과 광주 신창동유적이 대표적이다.

점토대토기나 세형동검 등이 부장되는 지석묘는 영산강유역권을 비롯해 서해안권·섬진강유역권·남해안권에서 확인되며, 석관묘는 고창 왕촌리와 함평 상곡리유적에서 흑도장경호와 경형동기 등이 출토되어 송국리식 무덤에 새로운 유형의 유물이 부장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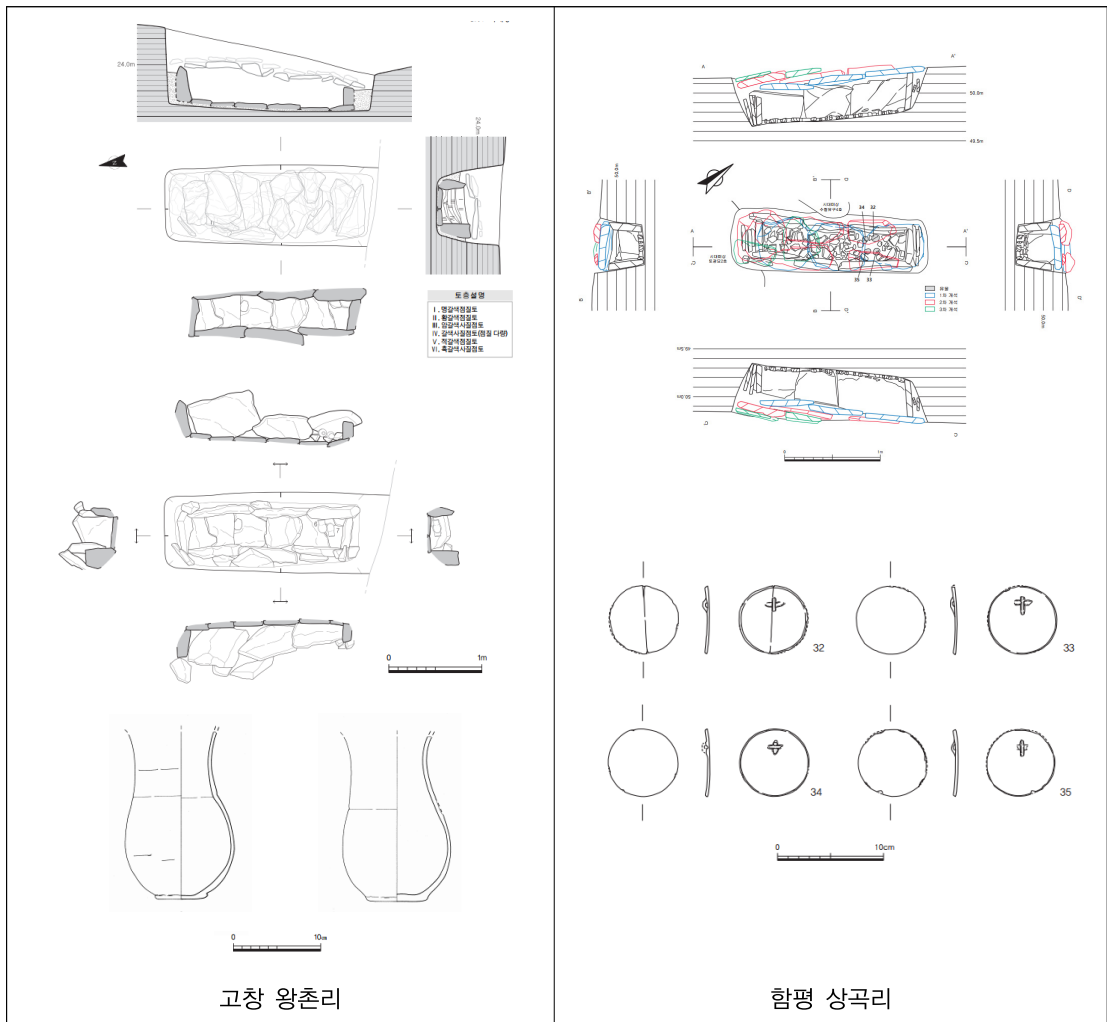


그림 3. 고창 왕촌리·함평 상곡리 석관묘와 출토유물

다량의 부장품이 출토되어 수장층의 상징으로 알려진 적석목관묘는 초기철기시대를 특징짓는 분묘의 대표유형이다. 그러나 적석목관묘는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발견된 경우가 많았으며, 용어 자체에 석관묘·적석석관묘·석곽묘·적석석곽묘·목관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개념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함평 초포리유적 보고서에는 ① 토광을 깊게 한 뒤 할석으로 네 벽을 쌓아 석관을 만들거나 목관과 묘광 사이를 할석으로 메우고, ② 관과 묘광의 뚜껑을 나무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고, ③ 상부에 적석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며, ④ 지하 2m 정도 깊이로 바닥을 설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무덤을 적석석관묘(또는 적석목관묘)로 명명하고 있으나, 유구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적석목관묘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다.

적석목관묘 유형은 새로운 물질문화의 유입과 함께 아직 초기철기문화가 정형성을 갖추기 전에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금강유역, 만경강유역, 영산강유역 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후 초기철기문화가 만경강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토광(목관)묘가 주 묘제로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적석목관묘는 규모도 줄어들고, 적석이나 이단 굴광의 특징도 약해지면서 점차 소멸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형식이나 용어를 세분해서 접근하기 보다 초기철기시대 전기 다량의 유물이 부장되는 유형의 무덤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호남지역에서는 만경강유역과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만경강유역에서 적석목관묘로 분류된 무덤은 익산 다송리, 군산 선제리, 전주 효자4유적, 전주 만성동·여의동 원만성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군산 선제리를 제외하면 유물의 부장이 많지 않고, 오히려 비슷한 규모의 다른 무덤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영산강유역은 화순 대곡리와 함평 초포리, 화순 백암리유적 등이 있으며, 팔주령·쌍두령·조합식쌍두령 등의 청동방울과 정문경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Ⅲ.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

호남지역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은 유구와 출토유물을 통해 그 흐름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원형 점토대토기가 주를 이루는 유적에서 원형과 삼각형이 공존하는 유적, 삼각형 점토대토기 일색인 유적으로 전개되며, 주요유적을 기준으로 크게 4단계로 전개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 I기-원형점토대토기의 유입

점토대토기문화가 호남지역에 유입되는 단계로 재지문화인 송국리문화에 원형점토대토기군을 비롯하여 이형청동기와 조문경 등의 외래문화가 공반된다. 만경강유역에서는 군산 선제리와 전주 평화동 대정Ⅳ·여의동·중인동유적 등이 있으며, 서해안권역의 정읍 정토와 고창 왕촌리, 영산강유역의 함평 상곡리유적을 들 수 있다. 유적은 대부분 송국리문화권에 조성되고 있어 점토대토기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유이민 집단과 기존의 송국리문화 집단이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두 문화가 융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송국리형주거지와 수석리식주거지로 구분되며, 군산 도암리와 완주 운교 등에서는 내주공과 타원형수혈을 갖춘 전형적인 송국리형 주거지에 원형 점토대토기나 두형토기편이 소량 공반된다. 수석리식주거지는 전주 대정Ⅳ유적으로 초기철기시대 유적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에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원형 점토대토기나 소형의 흑도장경호, 배신이 사선을 이루는 단각 공심형 두형토기, 환상과 조합식파수 등이 공반되는데, 점토대토기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고 대부분 송국리식 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분묘유적은 송국리형 무덤인 석관묘와 석개토광묘·토광묘가 그대로 사용되거나 약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새롭게 들어온 유물이 부장된다. 고창 왕촌리와 함평 상곡리는 재지의 석관묘에 소형의 흑도장경호와 경형동기가 부장되며, 군산 선제리에서는 다량의 세형동검과 함께 검파형동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검파형동기의 특징만으로 보면 대전 괴정동-예산 동서리-군산 선제리-아산 남성리 순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파형동기가 출토된 유구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적석목관묘이며,

파손이 심한 예산 동서리를 제외하면 대전 괴정동이나 아산 남성리는 묘광의 길이가 310~330cm, 너비 180~280cm, 깊이 200~240cm의 규모를 이루고 있어 함평 초포리 보고서에 제시된 적석목관묘의 특징에 부합된다. 그러나 군산 선제리는 길이 219cm, 너비 64cm, 깊이 54cm로 묘광의 규모가 작고, 할석을 주로 사용하는 적석목관묘와는 차이가 있으며, 판상형 석재로 구성되어 구조상 석관묘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완주 반교리와 전주 여의동에서는 기존의 무덤보다 규모가 대형화된 석개토광묘에 목관이나 흑도 장경호·조문경·선형동부 등이 새롭게 등장한다. 송국리식 무덤은 만경강을 경계로 북부는 석관묘, 남쪽은 석개토광묘와 토광묘의 비중이 높고, 석관묘나 석개토광묘에 비해 토광묘가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조성되면서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이 초기철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수영 2019:15-16). 토광묘의 전통은 전주 중인동과 중화산동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목관을 사용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세장방형의 토광묘에 청동기편이나 점토대토기가 부장된다. 중인동과 중화산동유적은 10여기 내외의 군집양상을 보이지만 부장율도 낮고 유물도 빈약하며, 규모나 부장품에 있어 무덤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유입기의 연대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대정IV유적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환상파수+조합식우각형파수+단각공심형두형토기 등과 함께 일단경식 석축 등 보령 교성리 출토유물과 상당부분 비슷하고, 석제 검파두식은 만경강유역에서 확인된 검파두식 가운데 가장 이른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검파두식은 기원전 4~3세기로 편년된다(오강원 2004:15). 또한 호서와 호남지역에서는 배신과 대각이 사선을 이루는 공심형의 단각 두형토기가 공통적으로 가장 이른 형식을 보이고 있는데, 대정IV유적에서는 이러한 두형토기 외에 요령 윤가촌 두형토기와 유사한 대각이 공반되어 이 역시 편년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전주 여의동유적에서 출토된 조문경은 볼록경으로 3세기 전엽으로 편년되고(조진선 2008:47), 함평 상곡리에서 출토된 경형동기는 대전 괴정동이나 예산 동서리에 비해 소형으로, 두께가 두껍고 누 속성이 변연누라는 점에서 중국 동북지방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며, 대전 괴정동류를 모방한 것으로 기원전 3세기 전엽으로 편년되고 있다(오강원 2017:82-83). 따라서 호남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가 유입된 시점은 금강유역 보다는 늦지만 큰 시기차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기원전 3세기 전엽을 중심으로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중엽경으로 볼 수 있다.

2. II기-원형점토대토기의 발전과 청동기의 최성기

점토대토기문화는 호서지방의 원형점토대토기단계, 전북지방의 원형+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 전남지방의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로의 변화양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II기는 원형점토대토기가 발전하며, 분묘에 청동유물이 다량 부장되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만경강유역의 생활유적은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가 말각방형으로 바뀌면서 내주공이 없어지고, 타원형수혈만 남겨나 소토화된 경향을 보인다. 주요 유적으로는 완주 상운리와 갈산리의 주거지가 있으며, 갈동유적의 구상유구도 II기에 포함된다. 출토된 유물은 전체적으로 I기와 비슷하지만 점토대토기군의 비중이 보다 늘어나고, 석기류는 줄어든다. 영산강유역은 만경강유역보다 한 단계 늦

은 특징을 보이는데, 송국리식 토기와 석제품이 주를 이루는 송국리형주거지에 원형점토대토기가 소량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나주 운곡동유적이 대표적이다.

분묘는 적석목관묘와 토광(목관)묘가 주요제를 이룬다. 만경강유역에서는 석관묘나 이단석개토광묘가 사라지고 전주 만성동·여의동유적에서는 대형 적석목관묘가 조성되며, 전주 원장동이나 완주 덕동유적을 중심으로 토광(목관)묘군이 점차 증가한다. 특히 만경강 중상류를 중심으로 유적이 집중되면서,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의 차이를 통해 수장층의 구분이 뚜렷해진다. 영산강유역에서는 화순 대곡리와 함평 초포리유적과 같이 풍부한 유물이 부장된 적석목관묘가 조성된다.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토기류는 흑도소호·흑도장경호·원형점토대토기·대부소호 등 I기에 비해 다양한 기종이 확인되고 있으며, 무문토기도 여전히 부장된다. 가장 큰 특징은 세형동검과 동과·동모 등의 무기류와 장방형동부·유견동부·동사·동착 등의 공구류, 팔주령·쌍두령·간두령·정문경과 같은 의기류 등 수량 및 종류가 풍부한 청동기가 부장된 점이다.

이와 같이 II기에는 수석리식 주거지·석관묘·석개토광묘 등이 사라지고, 유적에서 출토되는 송국리식 토기의 비율도 낮아진다. 만경강유역은 송국리형주거지의 퇴화양상이 나타나는 반면, 영산강유역은 송국리형주거지가 계속 조영되면서 송국리형주거지에 원형점토대토기군의 비중이 서서히 증가한다. 빈약한 생활유적에 비해 분묘는 영산강유역에서 적석목관묘가 조성되고, 만경강유역은 토광(목관)묘가 점차 주요제를 형성해 나간다. 영산강유역을 비롯하여 서해안권과 남해안권에서는 지식묘 혹은 지식묘 주변에서 점토대토기나 청동유물들이 보고되지만, 대부분 소형 편이거나 수량이 적고, 중심군을 형성하지 않아 점토대토기문화의 단계나 성격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II기는 세형동검과 정문경을 비롯하여 초기철기 분묘의 시기구분(김진영 2018; 조진선 2005; 조진선 2016, 한수영 2015)과 세형동검·다뉴경·동과·동모·동부 등 세형동검문화가 완성된 시점인 부여 구봉리유적의 연대를 참고하면(김일규 2019), 기원전 3세기 후엽에서 기원전 2세기 초반경으로 편년된다.

3. III기-삼각형점토대토기의 발전과 철기의 출현

III기가 되면 삼각형 점토대토기와 철기의 출현으로 물질문화의 변동이 확연하게 나타나며, 유적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만경강유역에서는 완주 갈동과 신평유적을 비롯해 전주 중동·정문동유적 등 생활유적이 조성되며, 영산강유역에서는 신창동유적과 평동유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만경강유역 생활유적은 송국리형주거지가 사라지고 전주 중동유적의 방형주거지가 등장하며, 이외에 중동유적과 인접한 중동A와 정문동유적 등에서 다량의 수혈과 구가 조성된다. 이러한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송국리식 토기에서 본격적으로 점토대토기 일색으로 바뀌면서 이전 단계에 비해 유물 수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기종도 다양해진다. 점토대토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주를 이루지만, 점토대의 단면은 원형·타원형·삼각형 등 다양하기 때문에 점토대의 단면으로는 유물의 속성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양상은 점토대토기가 소멸하는 IV기까지도 이어진다. 두형토기는 사선형 배신은 사라지고 완형의 배신부가 주를 이루며, 공심형 단각 외에 실심형 장각 등 다양한 대각이 제작된다. 석기는 편평삼각형석촉이 대부분이며, 토우와 원관형 토제품이 공반된다. 광주 평동

유적에서는 말각방형의 송국리형주거지에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며, 신창동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역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높은 비율을 보인다.

분묘유적은 적석목관묘가 사라지고, 목관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토광(목관)묘군이 주요제를 이루며, 소량이지만 횡치 합구식의 옹관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분묘에 부장된 토기류는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와 유사하지만 흑도장경호가 월등히 많고, 동일 기종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작아 부장을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신평유적에서는 40여 점에 가까운 흑도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길이에 비해 전체적으로 폭이 넓고, 동체 역시 편구형을 띠는 신평유적의 특징적인 흑도장경호가 제작되며, 이러한 기형은 IV기에 해당하는 김제 서정동Ⅱ유적이나 나주 구기촌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청동기는 간두령을 제외하고 방울류는 사라지며, 공구류부터 점차 철기로 대체된다. 부장품이 줄어든 대신 규모와 입지의 우월성 등에서 수장층의 특징이 반영되는데, Ⅱ기에서는 세형동검과 정문경 등 다량의 청동유물이 수장층의 무덤에 부장되었다면, Ⅲ기에서는 철기의 출현과 함께 청동기가 다량 부장되는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 즉, 철기의 등장으로 위세품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무덤에 부장된 양상으로 볼 때, 정문경의 상징성이 변화하는데, Ⅱ기의 정문경은 한 무덤에 2~3매 정도 다수가 부장되며, 최상급의 청동기와 다량의 유물이 공반되어 수장층의 무덤을 상징하고 있다. 정문경 문양은 세선에 여러 복합문양이 시문되며, 부장된 위치는 피장자의 머리카락이나 상체 쪽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Ⅲ기에는 정문경의 크기나 문양의 패턴이 규격화된다. 대표적으로 완주 갈동 5호와 신평 가-43호 정문경을 들 수 있으며, 정문경이 부장된 무덤은 규모가 중소형급이고, 공반유물은 없거나 빈약해진다. 정문경의 부장위치 또한 피장자의 하단부나 발치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Ⅱ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규격화된 정문경은 횡성 강림리나 양양 정암리, 일본 약산 등에서도 보이는데, Ⅱ기의 정문경이 수장층의 상징이라면, Ⅲ기의 정문경은 만경강유역이 제작의 중심지를 이루면서 교역의 대상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Ⅲ기의 가장 큰 특징은 철기의 출현으로 주조철부와 철검, 단조로 제작된 철도자 등이 부장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평유적 가-57에서는 편평삼각형석촉과 동일한 철촉이 출토되었으며, 가-40호에서는 소형의 철편이 수습되었는데, 이러한 철제품은 자체 제작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Ⅲ기는 대규모 군집을 이루는 토광(목관묘)군과 방형 주거지의 조성을 특징으로 들 수 있으며,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와 철기로 대표된다. Ⅲ기의 연대는 기원전 2세기 전반부터 후반까지로 편년되며, 만경강유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교류양상은 앞에서 언급한 정문경과 이 시기에 출토된 다양한 외래계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완주 일대의 물질문화는 장수 남양리와 경주 죽동리유적 뿐 아니라 만경강 하류, 고창과 영산강유역으로도 이동하면서 IV기로 이어진다.

4. IV기-삼각형점토대토기의 소멸

IV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의 소멸기로 만경강유역은 중상류에 위치한 완주와 전주 일대에 유적이 사라지고, 만경강 중하류와 고창과 영광 등의 서해안권,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유적이 조성된다.

생활유적은 중심유적이거나 정형성을 보이지 않아 유구의 특징도 뚜렷하지 않다. 김제 반월리유적에서는 주거지·수혈유구·구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는 350cm 내외의 말각방형계이며,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2호에서는 노지로 추정되는 소토부가 확인되었다. 섬진강유역권의 곡성 대평리 유적 1호 주거지에서도 소토부가 확인되어 이 단계부터 주거지 내에 노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반월리유적 수혈은 평면이 원형·타원형·방형 등으로 다양하며, 전체적으로 소토부와 목탄층이 확인되어 소성유구로 보고 있다. 출토된 유물은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우각형·봉상형 파수, 시루와 옹형토기, 호형토기, 대각이 낮은 두형토기와 소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고창지역에서는 율계리와 연수동·황산유적 등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시루·두형토기 등이 공반되고 있으며, 영산강유역에서는 신창동유적과 평동유적 등이 계속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 광주 오룡동과 운남동·치평동을 비롯하여 함평 고양촌, 해남 군곡리유적 등 유적의 수량과 분포범위가 증가한다.

분묘는 토광(목관)묘와 옹관묘, 주구토광묘가 조성되는데, 토광(목관)묘는 김제 서정동Ⅱ유적과 최근 조사된 익산 마동, 나주 구기촌유적이 대표적이다. 서정동Ⅱ유적과 마동유적에서는 토광(목관)묘와 옹관묘가 동일한 묘역에 조성되었으며, 특히 옹관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옹관묘는 광주 신창동유적에서도 53기가 확인되었는데, 합구된 묘광의 길이는 60~134cm 내외를 이루고 있다. 옹관묘는 Ⅲ기에 비해 Ⅳ기 옹관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시간적인 변화상을 보이며, 그동안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옹관이 모두 소아묘로 조영되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나주 구기촌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 등과 함께 단조철기, 우각형동기 등이 공반되어 초기철기 분묘 가운데 가장 늦게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조합식우각형파수의 빈도가 낮아지면서,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점차 외반되는 홀구연으로 변화하고, 파수는 우각형이나 봉상파수가 주를 이룬다. 두형토기는 Ⅲ기에서는 단각·장각 등 다양한 형태의 두형토기가 제작되는 반면, Ⅳ기에는 수량이 적고, 대각의 높이가 낮아지며, 배신의 구경도 줄어드는 소형이 다수를 이룬다. 또한 소량이지만 실심형의 장각과 광나팔형·호선병형 등의 대각부가 제작되고 있어 늦은 시기의 특징을 보이며, 이외에 납작한 뚜껑과 시루가 공반된다.

분묘는 군집을 이루는 양상이 이어지나, 수장층으로 대표되는 무덤의 특징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특히 비슷한 시기의 창원 다호리나 대구 팔달동유적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수장층에 부장되는 유물의 수량은 빈약한 편이다. 따라서 Ⅲ기 이후부터 초기철기문화의 중심세력이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하였으며, 호남지역에서는 중심세력이 형성되지 않고, 이러한 경향이 기원 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소멸되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만경강유역은 기원전 2세기 말부터 기원전 1세기 경을 그 하한으로 볼 수 있으며, 영산강유역은 나주 구기촌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다호리유적과 비교 가능한 우각형동기나 대구 팔달동 101호 출토품과 유사한 삼각형동기 등을 참고하면 기원후 1세기경까지 소멸기로 편년된다.

IV. 향후 논의과제

호남지역 초기철기문화는 그동안 세형동검이나 철기문화를 비롯하여 분묘와 생활유적, 패총, 의례와 대외교류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학술적으로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김경철 2009; 김규정 2021; 김상민 2020; 김승옥 2016; 김진영 2021; 장지현 2015; 최성락·김건수 2002; 최완규 2014 외). 초기철기문화는 중국 동북지역 뿐 아니라 산둥반도와 양자강유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하지만, 호남지역에서 확인된 자료의 1차적인 해석과 국내의 교류양상 등 아직 많은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초기철기시대의 연구과제는 최성락(2000, 2013)에 의해 이미 여러차례 언급된 바 있으며, 여기서는 앞으로 논의점에 대하여 몇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수석리식주거지의 정의

앞에서 살펴본 전주 대정Ⅳ유적은 말각장방형에 장축노가 시설되어 있으며, 원형점토대토기를 비롯한 흑도장경호, 환상형과수, 두형토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는 최근 아산만유역을 중심으로 한 호서지방 보고서에 의하면 수석리식으로 구분된다.

수석리유형 혹은 수석리식은 이청규에 의해 처음 명명되었다. 이청규는 당시 양양 오산리와 보령 교성리,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20여기 안팎의 유적을 종합하여 水石里-燕岩山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원형점토대 구연의 심발형토기와 환형손잡이는 수석리식, 원형점토대 구연과 조합식우각형손잡이의 호형토기는 교성리식으로 세분하였다(이청규 1988:72-78). 이후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은 주민이주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중국 심양 공주둔 후산 1호 주거지가 그 모델로 제시되었으며(박순발 2003:62-69), 수석리·교성리·반계리 등 수석리유형이 출토되는 유적을 외래계 취락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외래계 주거지에서는 중국 요령지역에서 유입된 벽부노 또는 장축노가 확인되며, 이를 곧 수석리식주거지로 명명하였다(이형원 2015:95-98). 호서지역 보고서에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송국리형(휴암리형)이 아니면 대부분 수석리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전주 대정Ⅳ유적 역시 수석리식주거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정Ⅳ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송국리식 토기가 주를 이루며, 점토대토기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일부이다. 이러한 양상은 대정Ⅳ유적과 비슷한 아산만 일대에서도 확인되는데, 수석리식으로 명명된 유적의 대부분은 재지의 무문토기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벽부노는 없고 모두 장축노이다. 요동지방의 모델로 제시된 공주둔 후산 주거지는 벽에 붙은 노지의 위치 뿐 아니라 草泥土를 이용한 지상식 구조도 특징적인데, 대정Ⅳ유적이나 아산만 일대 유적에서 확인된 장축노의 형식은 평면 원형계의 토광형과 무시설석이며, 서천 추동리유적은 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수석리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주거지 내부에서는 바닥이나 벽가를 따라 소주공이 배치되어 있는데, 노지와 주공 등의 양상은 역삼동유형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

박순발도 언급하였듯이 요령지방 점토대토기 주거지는 공주둔 후산유적을 제외하고 비교자료가 없는 실정이다(박순발 2003). 따라서 중국 요령지방 점토대토기 주거지의 양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

왔기 때문에 공주돈 후산유적이 점토대토기 주거지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원형점토대토기 주거지의 유형을 설정할 당위성은 충분하나 벽부노의 위치만 선택하여 장축노까지 확대해석하고, 노지가 없는 주거지까지 수석리식주거지로 분류하기에는 외래계 주거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개념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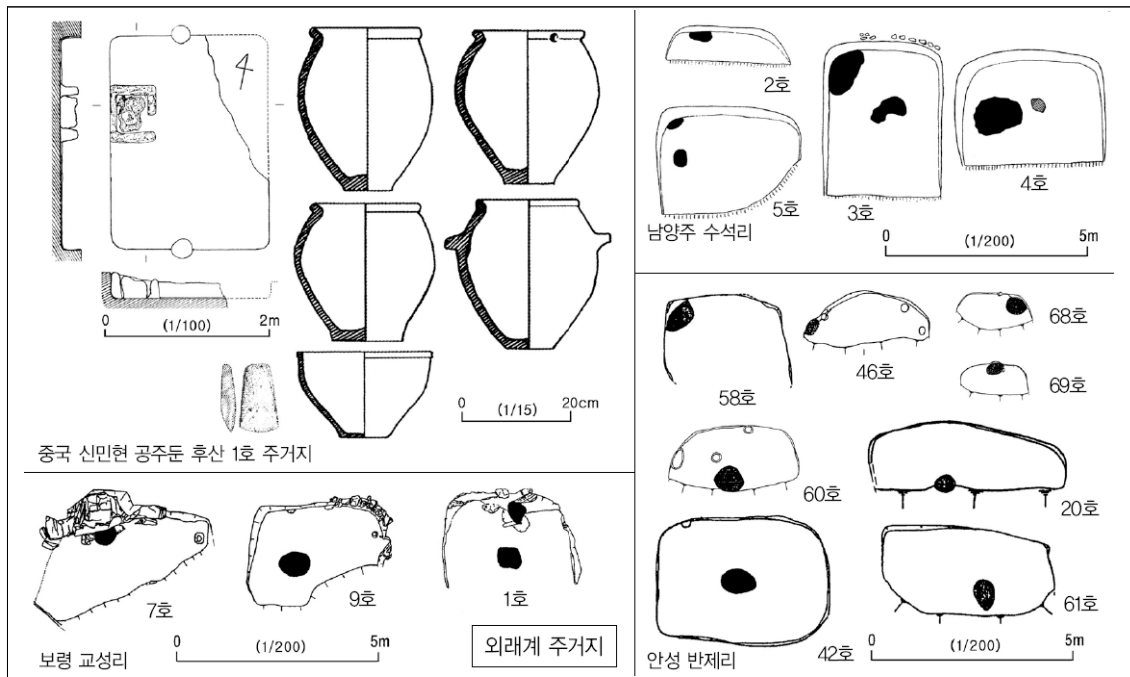


그림 4. 중국 신민현 공주돈 후산 1호 주거지와 수석리식 주거지(이형원 2016, 도면2)

2. 호남지역의 대외교류

호남지역 초기철기문화의 대외교류는 중국 동북지방과 관련된 점토대토기군·세형동검·다뉴경, 연나라와 관련된 전국계 철기문화, 세형동검문화의 일본 구주지역 전개양상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이 외에도 초기철기시대에는 급변하는 중국 정세 속에서 중국식동검·철기·철경동축·화폐·한경 등 다양한 외래문화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익산 오룡리유적에서 출토된 엽맥문경은 집안 오도령구문과 단동 조가보유적 등과 비교가 가능하며, 광주 신창동유적에서는 낙랑토기 및 야요이계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지역 외에 동사의 기원은 중국 남부지방(윤태영 2010), 통나무관은 중국 서남부지역과의 관련성이 제시된 바 있다(이재현 2003). 한반도 내에서도 서북한 지역 및 평양, 아산만 일대, 금강유역, 영남지방과 관련된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나, 일부 유물을 제외하고 그 문화적인 배경이나 교류양상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자료 가운데 청동기 제작과 관련하여 전주 안심, 전주 마전, 광주 신창동유적에서는 송풍관이 출토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전주 안심유적과 마전유적의 송풍관은 마

형의 장식 흔적이 남아 있어 영성 소흑석구나 능원 삼관전 중 요서지방과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요서지방과의 관련성은 영성 소흑석구 석곽묘와 군산 선제리 출토 검파두식의 부장양상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통해 한반도 검파두식과 소흑석구 유적과의 관련성이 언급된 바 있다(허준양 2013; 한수영 2019). 물론 요서지방과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요동지방 외에 보다 다양한 교류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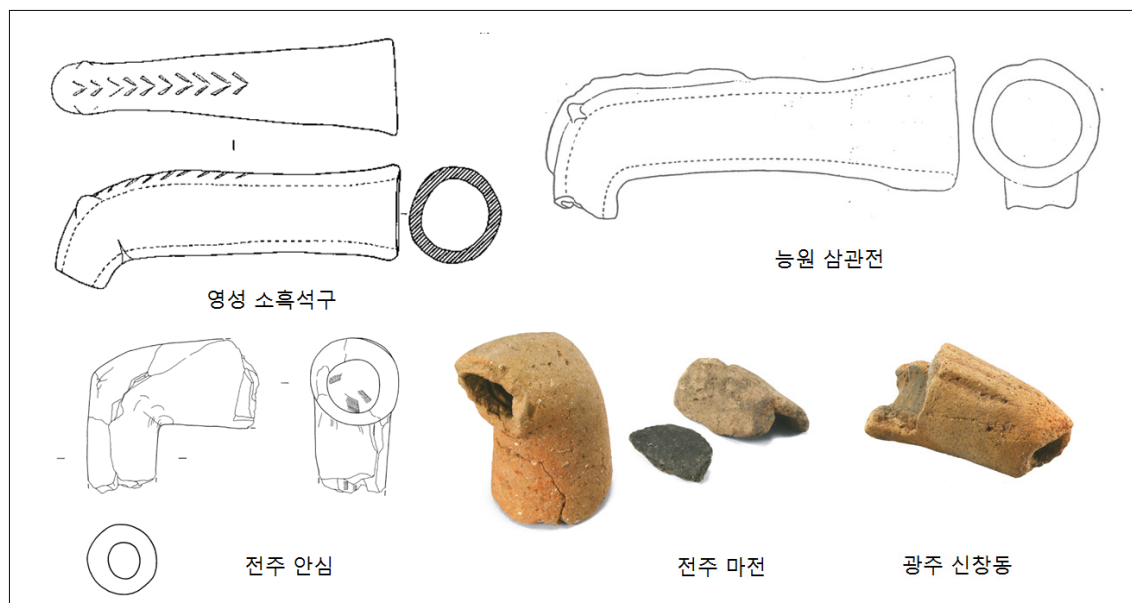


그림 5. 중국 요서지방과 호남지역 송풍관 자료

또한 앞에서 살펴본 전주 중동유적에서는 주거지 하단부에서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는데, 이 층에서 평기와 7점이 출토되었으며, 이와 함께 야요이계 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평기와는 모두 암키와로 두께는 1.3~1.7cm로 얇은 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여 점토대 토기와 동일하며, 연질소성으로 색조는 적갈색을 띠고 있다. 무문양으로 측면에는 와도흔이 뚜렷하며, 일부에서는 사절흔으로 추정되는 제작기법이 관찰된다. 그동안 국내 기와는 한사군 설치 이후 평양 일대에서 출토된 바 있으나, 그 이후로도 기와의 사용은 일반적이지 않아 자료가 많지 않다. 중동유적의 기와는 지속적인 동북아시아의 대외 교류망 속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국기와 자료와 비교검토를 통해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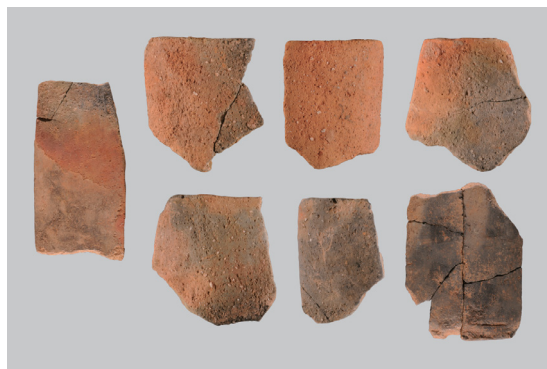


그림 6. 전주 중동유적 평기와

야요이계 토기는 일부 편으로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으나 구연부가 외경하거나 덧붙이는 형태를 보이며, 동체부에는 침선이나 돌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토기는 城ノ越式이나 須玖Ⅰ式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²⁾. 또한 전주 정문동유적에서 출토된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는 편구형 동체를 이루는 다른 과수부호와 달리 동체부에서 급격히 축약되어 저부로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기형도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외래계 유물은 주로 중국이나 북쪽에서 내려온 유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야요이계 토기는 만경강유역의 청동유물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시 국제관계에 있어 상호교류인지, 전파인지 그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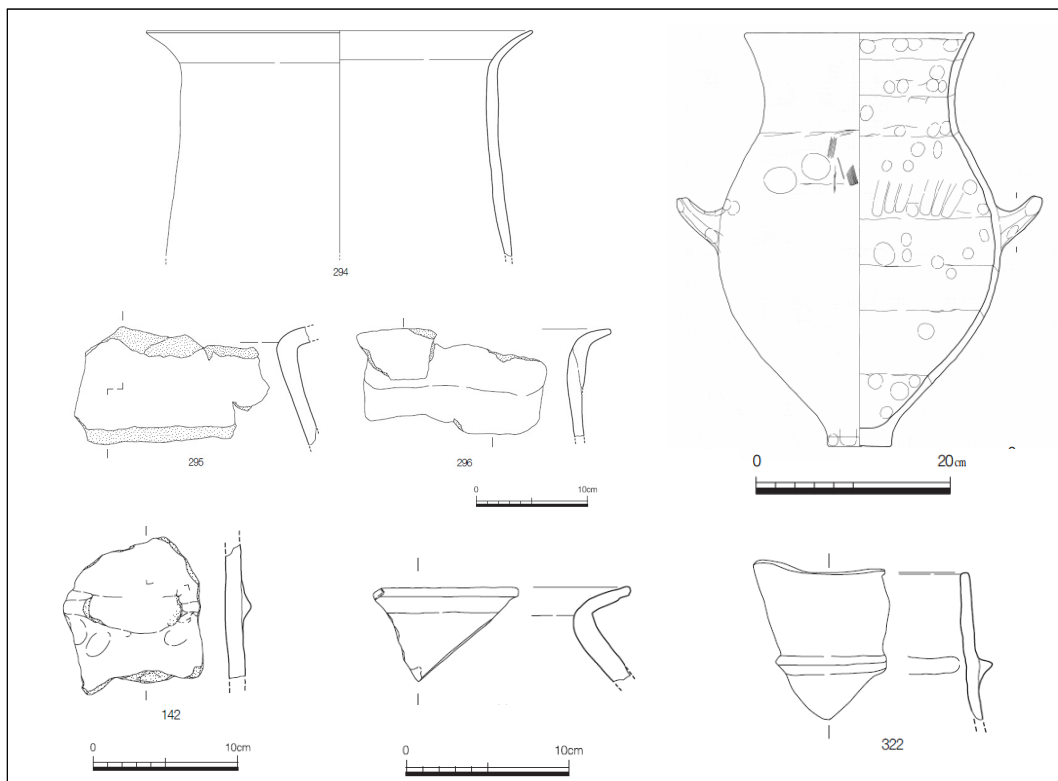


그림 7. 전주 중동·정문동(우상)유적 야요이계 토기

3. 제철유적에 대한 연구

초기철기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철기의 출현인데, 철기는 그동안 연하도유적이 중심이 되어 전국계 철기의 유입과 그 유입시기가 언제인지에 주로 논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연하도 유적의 연대가 확실치 않다는 반론도 많으며, AMS연대도 연구자마다 의견이 상이하다. 더욱이 유구에 부장된 연대로 볼 것인지 제작된 연대에 기준을 둘 것인지에 따라서도 시기폭이 클 수 밖에 없다.

초기철기유적 가운데 가장 빠른 철기유물은 완주 갈동과 신평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주조철

2) 편년 자료는 井上主税, 2006, 「嶺南地方 出土 倭系遺物로 본 한일교섭」, 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을 참고하였다.

부와 철검, 철착, 철사, 철도자, 철촉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평유적에서 출토된 철촉은 재지문화에서 보이는 편평삼각형석촉에서 재질만 철로 바뀌었으며, 가-40호에서는 소형 철편이 확인되고 있다. 청동기와 철기의 제작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만경강유역에서 제동 이후 제철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은 충분하며, 이러한 철촉과 철편은 자체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전북 동부지역에서는 다수의 제철유적이 보고되고 있다(곽장근 2017). 아직 초기철기 시대 제철유적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만경강유역 유적의 부재는 철기가 본격화되면서 제철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초기철기문화가 가장 먼저 유입된 지역에서 철기 제작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앞으로 철기의 제작과 제철유적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호남지역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호남지역 초기철기문화는 전체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서에서 동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유구나 유물의 변화 양상은 만경강유역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이후 서해안권이나 영산강유역, 동부섬진강유역 권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송국리문화의 소멸도 만경강유역에서 먼저 나타나며, 영산강유역이나 동부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확인되고 있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만경강유역과 영산강유역이 중심을 이루며, 발전과정은 4기로 살펴볼 수 있다. 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주거지는 전주 대정Ⅳ유적의 말각장방형계,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의 주거지는 전주 중동유적의 방형주거지가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에서 타원형수혈이나 내주공이 사라지면서 말각방형으로 바뀌고, 말각방형에서 점차 방형으로의 변화양상을 보인다. 동부섬진강유역은 송국리형주거지에서 타원형으로 바뀌는 지역적인 특징을 보인다. 노지는 전주 대정Ⅳ유적에서 1~2기의 장축노가 조영되지만 이는 전기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전통으로 이해되며, 삼각형점토대토기 소멸기인 Ⅳ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한다.

분묘는 Ⅰ기에는 송국리식 무덤인 석관묘와 석개토광묘·토광묘에 점토대토기나 검파형동기·경형동기 등의 청동유물이 부장되며, Ⅱ기에 본격적으로 적석목관묘와 토광(목관)묘가 조성되면서 세형동검·정문경 등의 풍부한 청동유물이 제작된다. Ⅲ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철기로 대표되며, 토광(목관)묘가 주요제로 조영되고 청동유물의 부장이 감소하며 위세품이 철기로 대체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 따라서 Ⅲ기에 전반적인 변화가 크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준왕의 남래와 그로 인한 마한사회의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Ⅳ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소멸기로 무덤군은 조성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수장급의 무덤이 부재하며, 이러한 양상은 기원후 2세기까지 이어진다. 꾸준히 1~2세기 자료도 증가하고 있지만, 초기철기시대 이후 유적의 부재는 제철유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 곽장근, 2017,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 57.
- 김경철, 2009, 『湖南地方의 原三國時代 對外交流』, 학연문화사.
- 김규정, 2021, 『호남지역 마한 성립기 주거지 일고찰』, 『湖南考古學報』 67.
- 김상민, 2020, 『동북아 초기철기문화의 성립과 고조선』, 서경문화사.
- 김승옥, 2016,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과 특징」, 『韓國考古學報』 90.
- 김일규, 2019, 「평장리 출토 漢鏡을 통한 세형동검문화기의 기년 연구」, 『韓國考古學報』 111.
- 金珍英, 2018, 「榮山江流域 鐵器時代 文化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김진영, 2021, 『호남지역 마한시기 패총의 변천과 역사적 함의』, 『湖南考古學報』 67.
- 朴淳發, 2003, 「粘土帶土器文化의 定着 過程」,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49회 추계 학술발표회.
- 오강원, 2004, 「遼寧~韓半島地域 琵琶形銅劍과 細形銅劍의 劍柄頭飾 研究」, 『동북아역사논총』 2.
- 吳江原, 2017,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의 경형동기 연구」, 『한국청동기학보』 20.
- 윤태영, 2010, 「扶餘 九鳳里遺蹟 出土 鉞에 대한 考察」, 『考古廣場』 7.
- 李南珪, 2002, 「韓半島 初期鐵器文化의 流入 樣相-樂浪 設置以前을 中心으로-」, 『韓國上古史學報』 36.
-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종철, 2015,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전개와 취락 체계』, 학연문화사.
-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 1.
- 李亨源, 2015, 「住居文化로 본 粘土帶土器文化의 流入과 文化變動-江原 嶺東 및 嶺西地域을 中心으로-」, 『韓國青銅器學報』 16.
- 李亨源, 2016, 「忠清西海岸地域의 粘土帶土器文化 流入과 文化接變」, 『湖西考古學』 34.
- 장지현, 2015, 「호남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양상과 특징-생활유적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51.
- 井上主稅, 2006, 「嶺南地方 출토 倭系遺物로 본 한일교섭」, 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趙鎭先, 2005, 『細形銅劍文化의 研究』, 學研文化史.
- 趙鎭先, 2008, 「多鈕粗紋鏡의 形式變遷과 地域的 發展過程」, 『韓國上古史學報』 62.
- 趙鎭先, 2016, 「多鈕精文鏡의 型式變遷과 意味」, 『韓國上古史學報』 94.
- 趙鎭先, 2016, 「세형동검문화의 일본열도 파급」, 『湖南考古學報』 53.
- 최성락·김건수, 2002, 「철기시대 패총의 형성 배경」, 『湖南考古學報』 15.
- 최성락, 2000, 「호남지역의 철기시대-연구현황과 과제-」, 『湖南考古學報』 11.
- 최성락, 2013,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연구현황과 전망」, 『湖南考古學報』 45.
- 한수영, 2011, 「만경강유역의 점토대토기문화기 목관묘 연구」, 『湖南考古學報』 39.
- 韓修英, 2015, 「全北地域 初期鐵器時代 墳墓 研究」, 全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한수영, 2017, 「완주 신평유적을 중심으로 본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 『湖南考古學報』 56.

- 한수영, 2019, 「만경강유역 청동기문화 전개 양상」, 『만경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 한국청동기학회.
- 한수영, 2019, 「묘제를 통해 본 점토대토기문화기 호남지역의 전통과 변형」, 『동북아 초기 역사시대 물질문화의 접촉과 변용』, 한국학중앙연구원.
- 許俊亮, 2013, 「劍把形銅器의 製作技法」, 『아시아주조기술사학회 연구발표자료집』 7.

